

막막하게 느껴지는 자기소개서 쓰기

-취업할 때 꼭 필요한 자기소개서 쓰는 꿀팁



▷사진 출처 - pexels

자기소개서란?

자기소개서란 취업을 할 때 가장환경, 성장 과정, 성격, 대인관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회망하는 회사나 조직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다. 자기소개서는 이어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과 함께 취업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중의 하나로 이력서나 경력증명서에서 보여주지 못한 자신의 특성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기소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며 인사 담당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가정 환경이나 성장 과정, 성격, 대인관계, 창의성 등을 파악하게 된다. 잘 된 자기소개서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을 말하며, 자신이 말하려 하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뛰어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취업에 꼭 필요한 자기소개서 첫 단추를 잘 끌기 위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알려주자 한다.

자기소개서 유형

1) 성장배경 및 인간관계 위주
본인의 성장 및 주변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타입으로, 성장 배경이나

교육과정, 인간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원 둘거나 내면 의식 등을 약하게 어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출생 ② 성장 과정 또는 배경 ③ 교육 과정(전공 및 관심 분야나 동아리 활동) ④ 취미, 특기, 친구 관계 ⑤ 종합정리(내면의 이야기 포함) ⑥ 지원동기 ⑦ 총정리 및 지원회사에 대한 각오

2) 핵심 내용 위주

핵심적인 부분을 고르게 정리하여 서술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다. 본인의 신상명세, 성장 과정에서부터 지원동기 부분까지 핵심적인 부분만 고르게 정리하여 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항목이 조금만 길어져도 분량이 많아지게 되며 구성을 해놓지 않으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① 출생 ② 성장 과정 또는 배경 ③ 교육 과정, 취미, 기타 ④ 종합정리(내면의 이야기 포함) ⑤ 지원동기 ⑥ 총정리 및 지원회사에 대한 각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1) 알맞은 분량으로 작성
자기소개서는 A4용지 1~2장 정도가 적당하다. 개인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나 소재를 통해서 지원자의 재능과 인품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자기소개서의 내용구성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는 성장 과정, 경력 및 특기 사항, 일사 지원동기, 장래포부 등이 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지원 회사의 인재상을 미리 살펴본 후 그에 적합한 내용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임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3) 헤드라인 형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소설 형식이 아니라 중간마다 헤드라인을 삽입하여 강조점을 두는 것이 좋다. 인사담당자가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추상적인 표현의 자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사담당자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게 한다.

5) 기업문화 파악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지원하는 기업의 고유문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근면과 성실을 중요시한다면 그에 맞는 자신의 경험, 경력과 강조하고, 반면에 창의력

과 아이디어를 존중한다면 뛰는 카피에 일러스트, 음성이 곁들여진 과격적인 형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업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보도자료도 검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제시하는 인재상은 너무나 추상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를 활용하여 서술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호감을 줄지도 모른다.

6) 구체적인 경력표현

기업에서는 일사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므로 지원 분야와 연관 있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 또 직장 경험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묘사한다.

7) 일사 후 포부

비전이 없는 지원자는 단순히 취업을 위해 지원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일사 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자세로 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8) 지원동기 강조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성장 과정, 성격, 학교생활, 지원동기, 일사 후 포부 정도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일사 동기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회사가 나를 뽑아

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최근 회사가 이러한 경영 지침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이런 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 이 좋다.

자기소개서 쓸 때 이것만 확인하자.

1) 간결하고 정확한 문체를 사용했는가.
문장을 간단,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효율적 방법이며, 문장이 길어지면 산만해지기 쉽고, 읽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자기소개서는 과다한 수사법이나 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간결한 문체의 단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접속조사, 복수, 수식어가 겹치거나 한 문장에 여러 요소가 중복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글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개성 있게 작성했는가.

자기소개서에서 작성 시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생활 등을 적어 내려가보면 자칫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되기 쉽습니다. 수많은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가운데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끼'와 독창력을 중시하는 광고사 등의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개성을 일상화하고자 하는지, "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회사가 나를 뽑아

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3) 사족을 없애고 꼭 할 이야기만 했는가.

언급해야 할 내용은 빠트리지 않되,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이는 자칫 집중력을 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한 가지 사실에 연연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응시 업종과 관련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적는 것이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다. 수사나 비유 등 기교의 남발은 오히려 생각을 분산시킬 뿐이며, 외래어나 한문은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장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

4)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작성했는가.

서류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허겁지겁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많은데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자기소개서는 초고 작성 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내용과 문장을 수정 보완한 후 최종 작성하는 것이 좋다.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는 새로 작성함으로써 여기저기 끊어고친 흔적이 없도록 하며 오자나 탈자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료 출처 : 예스풀
장희진 기자
jhn2087@gmail.com

모르면 나만 손해 교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동서대학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모든 것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3월이 되었다. 3월은 새로운 풍차 소식도 많이 뜯는 달이기도 하다. 혼자 취업 준비를 한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동서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 동서대학교에서는 교내 학생들을 위해 어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지 알아보자!

-장외인재육성센터

장외인재육성센터는 현실적인 취업 문제를 뛰어넘어 학생들의 숨은 끈과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당당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The Only One'의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부서이다.

You★(별)난 프로젝트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발견 멘토링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 방향설정 장기 프로젝트

- 세부내용 : 멘토링, 캠프, 체험활동(조정 등), 견기대회 등
- 참가자격 : 1~2학년, 30명
- 개설 시기 : 1학기(9월 초순 모집)

To Be 프로젝트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개발 멘토링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장기 프로젝트

- 세부내용 : 멘토링, 캠프, 교육(스피치, 인문학) 등
- 참가자격 : 1~3학년, 30명
- 개설 시기 : 2학기(9월 초순 모집)

나만의 달란트 찾기

저학년 학생들의 전공 연계 진로발견 멘토링

• 세부내용 : 멘토링 및 워크샵

• 참가자격 : 1~2학년, 20명

• 개설 시기 : 2학기(9월 초순 모집)

나보다 게으른 사람 있으면 나와 봐!

진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매사 소소직이며 게으른 학생들을 변모시키는 프로젝트

• 세부내용 : 태도 변화 멘토링, 스피치, DSU-TED

• 참가자격 : 1~3학년, 20명

• 개설 시기 : 2학기(9월 초순 모집)

직무자격증 취득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반 운영

• 세부내용 : 전산회계 2급, ITQ/ICDL, SMAT, GTQ/GTQi 등

•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참가자격 : 재학생

• 개설 시기 : 하계, 동계방학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자

저학년 학생들의 자발적 달란트 발견 과정 및 결과 발표 공모전

• 제출서류 : 발전과정 UCC/발표 PPT

• 참가자격 : 1~2학년 재학생

• 개설 시기 : 2학기(9월 초순 모집)

• 기타 : 순위별 장학금 차등 분배

나의 미래를 상상하자

고학년 학생들의 10년 후 미래를 상상 발표 공모전

• 제출서류 : 자유 양식(현재 준비 과정 및 미래의 자신 설계)

• 참가자격 : 1~3학년 재학생

• 개설 시기 : 2학기(9월 초순 모집)

• 기타 : 순위별 장학금 차등 분배

재학생직무체험

인문·사회·계열·예체능 계열 3, 4학년

재학생의 직무체험 기회제공

• 전공 선택 3학점 및 대학정책 현장 실습 인정

• 참가자격 : 인문·사회·계열·예체능 3, 4학년 (졸업 예정자 제외)

• 개설 시기 : 하계, 동계 계절학기

K-Move스쿨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동서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년 해외 진출사업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약 8개월간 맞춤식 교육을 받고 해외기업으로 취업하게 된다.

• 참가자격 : 관련 전공 4학년 졸업 예정자

• 개설 시기 : 7월

• 기타 : https://dsuocc.modoo.at/

동서 W 커리어코칭

개인별 맞춤형 커리어코칭 진로 탐색 및 설계, 취업전략 수립, 커리어포트풀리오

• 참가자격 : 1~2학년/3~4학년 여학생 80명

• 개설 시기 : 9월

프레젠테이션 역량 강화교육

스토리텔링에서 스피치훈련까지, 기획·구성·디자인·발표 종합적 능력 향상 21시간(강의+실습)

• 참가자격 : 2~4학년 남녀학생 24명

• 개설 시기 : 9월

여대생 셀프리더십 강화 워크숍

저학년 학생들의 1학기 2월 진로개발 및 리더십 강화 캠프

• 참가자격 : 1~2학년 여학생 40명

• 개설 시기 : 9월

• 기타 : 경주 교원드림센터

재학생취업지원처

인문·사회·계열·예체능 계열 3, 4학년

재학생의 직무체험 기회제공

자료 출처 : 동서대 학생취업지원처

장희진 기자

jhn2087@gmail.com

취업에 도움 되는 앱 정보 알고 가세요!

-현직자가 도와주는 취업사이트 코멘토



▷사진 출처 - 코멘토

책 속의 풍경

20대, 마음껏 흔들리고 아낌없이 실패하라!



- 책 제목 : 20대 심리학
- 책 저자 : 과금주
- 출판사 : 랜덤하우스코리아

<흔들리는 20대>, 실제 서울대에서 개설된 강의였고, 수강생들은 이 과목명을 ‘흔들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스물일곱세에야 4학년이 된 여학생의 방문을 계기로 탄생한 이 강의는 많은 인기를 누렸고, 책으로까지 끌여나왔다. 자아 탐색, 사랑과 이별, 가족 그리고 친구, 성공과 진로, 실천적 맵핑 기술 등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의 키워드는 ‘맵핑’이라는 다소 낯선 단어이다. 맵핑(mapping)은 인생의 지도(map) 위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짐작하고 자신의 총체적인 생애를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튼튼한 건물을 올리려면 정밀한 설계도가 필수적인 것처럼, 인생 역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잘 짠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20대를 규정하는 새로운 이름, 이미징 어덜트후드(Emerging Adulthood)라는

용어도 흥미로웠다. 우리말로는 대략 ‘성인 진입기’, ‘성인 입문기’로 번역할 수 있는데 18세부터 25세 사이로 주로 대학생 시기라 이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20살부터 성인이 된다지만 갓 스무 살을 넘긴 우리들과 50대 부모 세대를 같은 성인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청소년기와 진짜 성인의 중간 단계를 부르는 호칭으로써 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기는 이미징 어덜트후드 시기이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크지만, 청년기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불투명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자아 정체감이다. 저자는 자신의 삶을 예측하고 싶다면 자아 정체감부터 확립하라고 말한다.

심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교수가 저자인 만큼 책 곳곳에 많은 심리학 용어와 사례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고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가 되어서야 그 단어가 이런 의미였나 싶은 추측에 가까운 답을 생각할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20대라면 누구나 고민했을 법한 주제들에 대해 지식을 넓혀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인 것은 분명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나에게 휴식의 느낌을 주는 책이었다. 어디선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만 있는 나이 스무 살’이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이처럼 사회 초년생인 우리는 경험의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심리 책들이 궁극적으로 전하는 말처럼 “모든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야 한

윤다은 기자
yoondasol73@gmail.com

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라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책들을 읽게 되는 것 같다.

책 본문 중 “성공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생애에 걸쳐서 몇 개의 역할 모델을 설정하고 그 모델들이 긍정적인 특징들을 통합해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들이 나의 모델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다양한 모델들로부터 긍정적인 특징들을 추출함으로써 자신의 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가령 아주 뛰어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자. 이 명관을 나의 역할 모델을 정한 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을 부정적인 생각보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대 심리학>은 20대들이 성공적인 인생 설계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실천법들을 담은 심리 교양서로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지는 책이었다. 허여나 그동안은 추상적이었던 진로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며 과연 그 수단은 내가 이루려는 목표에 얼마나 적합한 수단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생각나게 하는 놀라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윤다은 기자
yoondasol73@gmail.com

이달의 영화—플로리다 프로젝트

꿈같은 디즈니랜드의 이면



- 영화 제목 : 플로리다 프로젝트
- 영화 감독 : 선 베이커

고를 치고 다닌다.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건 바로 아이들의 부모님. 무너니 엄마 헬리는 무너니 사고를 치고 민원이 들어오면 무너니를 크게 뛰라고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너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법을 알려주는 헬리는 무너니 함께 ‘매직 캐슬’에서 방세를 내면서 같이 사는 미혼모이다. 회려한 문신과 민트색 머리를 가진 무너니 엄마 헬리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 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를 키우는 좋은 엄마는 아니지만, 항상 무너니의 편을 들어주는 좋은 친구와 같은 엄마다. 헬리와 무너니가 살고 있는 ‘매직 캐슬’은 빈곤자들의 여리 모습을 보여준다. 무너니 새로 사귄 친구와 함께 ‘매직 캐슬’ 곳곳을 다니며 예수와 결혼했다는 아줌마, 전쟁에 다녀와 맥주만 마시는 남자 등 아이들의 말을 빌려 소개하는 이곳이 아이들이 저마다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절저하게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정말 단순하다. 아이스크림 먹기,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만큼 잔뜩 먹기, 갖고 싶은 장난감으로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 하지만 현실은 하루 방세를 내기도 힘든 환경에서 아이들은 상상하며 얘기할 뿐이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게 된 후 과연 부모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와 떨어뜨려 놓는 것이 옳은 일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영화를 보면 헬리는 생활력이나 도덕적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시선으로 보면 옳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헬리와 무너니는 정말 서로가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웃는 장면을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하고 행복한데 꼭 둘을 뒤어놓아야 하는 걸까? 아마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보게 된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판단하고 무너니를 데려가기 위해 사람들 이 찾아온다. 여기서 단 한 번도 올지 않았던 무너니는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고 싶지 않다면 서럽게 운다. 여기서 무너니가 원하는 건 정말 큰 게 아니라 당장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를 잊는다는 두려움, 엄마 헬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움이자 슬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면모이었다.

이 영화의 제목을 다시 들여다보면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실제로 디즈니가 1965년 테마파크를 설립하기 위해 펭을 매입하고,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디즈니랜드를 주변에 지어지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 훌리스들을 위한 장기 투숙 프로그램을 말한다. 디즈니랜드를 행복한 마을로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있지만, 디즈니랜드 뒤에 지어진 모델들은 저소득층의 슬럼가처럼 변해 버려서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슬럼화가 느껴졌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게 된 후 과연 부모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와 떨어뜨려 놓는 것이 옳은 일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영화를 보면 헬리는 생활력이나 도덕적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시선으로 보면 옳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헬리와 무너니는 정말 서로가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웃는 장면을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하고 행복한데 꼭 둘을 뒤어놓아야 하는 걸까? 아마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보게 된다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정희진 기자
jhn2087@gmail.com

2019 소비 트렌드는 무엇일까?

돼지의 꿈, ‘PIGGY DREAM’



으로 유통의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고 한다.

Going New-tro : 요즘 옛날, 뉴트로

현재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킬만한 가게들이나 드라마들이 소비자들에게 압청난 열광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과거의 향수 때문만은 아니고 지금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주여 속의 장소나 미디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다.

Green Survival : 필(必) 환경 소비

환경 보호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 최근 빨대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상이다. 필(必)이라는 것은 환경 보호를 단순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You are My Proxy Emotion : 감정 대리인

유튜버나 개인 마켓 등의 1인 미디어가 유통이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가게를 열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을 유통할 수 있다. 이처럼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유통의 판이 흔들렸으며 결과적

나의 감정을 대행한다는 뜻이다. 이는 대신 기뻐해 주고, 슬퍼해 주고, 화를 내주는 등의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를 키우거나 연애를 하거나 반려견을 키우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보는 것만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Data Intelligence : 데이터 인텔리전스

4차 혁명의 시대가 열렸다. 또한 인공지능을 넘어서 데이터 지능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은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Rebirth of Place :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것이다. 이처럼 공간 또한 주변 환경에 맞춰 변신을 한다는 뜻이다. 여러 공간의 이색 조합을 통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색다른 변신으로 공간이 재탄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Emerging ‘Millennial Family’ : 밀레니얼 가족

감정 대리인이라 말 그대로 본인의 감정을 대신 표출해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 사진출처 - miceinsight

이제껏 배우자나 자녀, 가정을 위한 절대적인 희생이 아닌 개인의 주체성이 강조된다는 의미로써 더 이상의 희생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개인을 생각하고 개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As Being Myself : 나나랜드

나의 기준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는 뜻으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만족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제껏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단이일 것이다.

Manner Makth the Consumer : 매너 소비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친절한 직원과 매너 있는 소비자의 균형 즉 위커밸을 지향하는 단이이다. 최근 갑질과 같은 시례를 통해 이와 같은 단이가 생겨나고 있으며 매너 소비자는 소비자의 바른 지표가 되어줄 것이다.

자료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대신증권 공식 블로그’, ‘삼성증권 블로그 SAMSUNG POP BRIEF’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축제·공연 소식



광양 매화축제

- 기간 : 2019. 03. 08(금) ~ 2019. 03. 17(일)
- 장소 : 섬진강 매화마을 일원
- 주최 : 광양시



양산 원동매화축제

- 기간 : 2019. 03. 16(토) ~ 2019. 03. 17(일)
- 장소 : 원동마을 일원
- 주최 : 원동매화축제주진위원회



구례산수유꽃축제

- 기간 : 2019. 03. 16(토) ~ 2019. 03. 24(일)
- 장소 : 전남 구례군 자리산온천관광단지 일원
- 주최 : 구례군축제진위위원회



에버랜드 툴립축제

- 기간 : 2018. 03. 16(금) ~ 2018. 04. 29(일)
- 장소 : 에버랜드
- 주최 : 에버랜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기간 : 2019. 03. 21(목) ~ 2019. 03. 24(일)
- 장소 :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 주최 : 진도군



논산딸기축제

- 기간 : 2019. 03. 20(수) ~ 2019. 03. 24(일)
- 장소 : 논산천둔치 및 팔기밭일원
- 주최 : 논산시



영덕대게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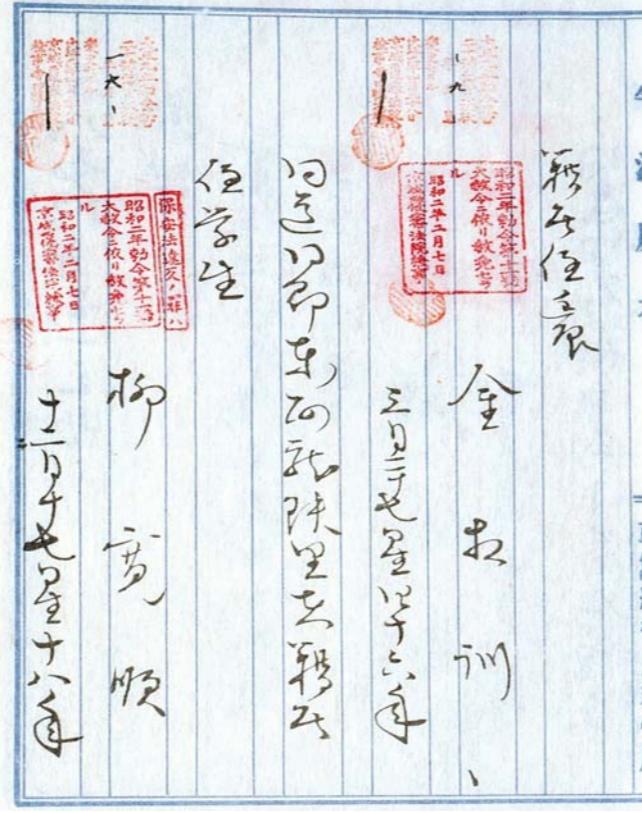
- 기간 : 2019. 03. 21(목) ~ 2019. 03. 24(일)
- 장소 : 경북 영덕군 강구항 일원
- 주최 : 영덕대개축제추진위원회

유관순, 3·1 만세운동의 불씨를 지피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



▷사진출처 - 독립기념관

▶판문문

▷사진출처 - 독립기념관



▷사진출처 - 현충시설정보서비스

3·1 절은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9년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욱 특별하다. 지금부터 3·1 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3·1 운동의 시작자인 독립운동의 대표적 인물, 일본의 모진 고문 앞에서도 굽하지 않고 만세를 외쳤던 18세 소녀 유관순 열사에 대해 알아보자.

#평범한 학생에서 독립운동가로

유관순은 1902년 충청남도 녹천군 이동면 지령리(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의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16년에 개신교 계 김리교회 충청남도 광주 교구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 사에리시 부인(앨리스 샤프, Alice Sharp)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교비생으로 편입학하고,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로 진학하였다.

#3.1 운동의 불씨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교회와 청신학교를 찾아다니며 서울에서의 독립 시위 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전안에서도 만세 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유관순은 부친 유중권의 주선으로 3월 9일 밤 교회 예배가 끝난 뒤 마을 속장 조인원, 지역 유지 이백하 등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촌 언니 유예도와 함께 서둘러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어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장날을 기해 만세 시위를 전개할 것을 계획했다. 그리고 당일,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조인원의 선도로 시위가 시작되자 유관순은 시위대 선두에서 독립 만세 시위를 벌였다.

#투옥 그리고…

유관순의 부모 유중권과 이소제는 시위

전개하기로 하고, 안성·목천·연기·청주·진천 등의 마을 유지와 유럽계를 규합하기 위해 연락원의 한 사람이 되어 다른 연락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시위운동 참여를 설득했다.

#아우내 장터에 올려 퍼진 독립 만세

이러한 노력으로 조인원, 김구(성공회 병천 교회에서 운영하던 친교학교 교사, 일제가 만세운동 탄압 과정에서 실해) 등이 연기·청주·진천 등지의 개신교 교회와 유럽계를 규합하여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장날을 기하여 만세 시위를 전개할 것을 계획했다. 그리고 당일,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조인원의 선도로 시위가 시작되자 유관순은 시위대 선두에서 독립 만세 시위를 벌였다.

#투옥 그리고…

현장에서 조선총독부 현병들이 군중을 향해 쏜 총에 맞아 살해되었고, 속장 조인원 등도 총격으로 부상당했다. 아우내 만세시위 주동자로 일제 현병에 붙잡힌 유관순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후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협력자와 시위 가담자에 대해 일절 밝힐하지 않았다. 유관순은 천안 경찰서 일본 현병대에 투옥되었다가 곧 공주 경찰서 감옥으로 이강되었고, 공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소요 죄 및 보안법 위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30일 경성 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하였다.

유관순은 경성 복심법원 재판 당시 일제의 한국 침략을 규탄·항의하면서, 조선총독부 법률은 부당한 법이며 그에 따라 일본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서대문형무소 복역 중에도 옥 안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때마다 형무관에게 글씨가 모진 구타를 당해 결국, 평기를 3개월 넘김 1920년 9월 2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된다.

#잊힌 역사

이 소식을 들은 이화학당 교장 프라이와 월터 선생은 형무소 당국에 류관순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화학당의 외국인 교직원들이 류관순의 옥중 사망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였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서대문형무소는 마지못해 월터 교장에게 시신을 인도하였다. 1920년 10월 14일에 정동 감리교회에서 김종우 목사가 장례예배를 집례하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 이후 그녀의 존재는 잊혔다. 유관순의 시신은 홈페이지에 올리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당 지나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숭고한 목숨을 희생한 유관순 열사. 그녀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결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끊히지 않았다. 열아홉,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녀가 일으켰던 태극기 물결과 대한 독립에 대한 간절한 의 chí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녀가 어디에 묻혀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니 참으로 아동한 마음이 듦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이를 없이 사라진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과 함께 자신이 받는 고문의 고통보다 나라 잃은 고통이 더 견딜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자료 출처 : 국가보훈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피디아

박가희 기자
pgh0419@gmail.com

19학번 신입생을 위한 꿀 TIP 사전!



▷사진출처 - brilliantctravel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는 3월이 시작되었다. 3월이라고 하면 학기가 새로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며 매년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첫 개강을 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이 설레기도 하지만 처음 대학 생활을 하는 만큼 두려운 마음도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약 4년간의 대학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지표를 보여주려 한다.

첫 번째, 동아리 활동을 즐겨라

공부는 물론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교내에는 존재한다. 같은 학과의 학생들도 아닌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타과 학생들도 쉽게 사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나 평소에 어렵지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훈수가 아닌 여赖以生存 함께 즐기고 끌어나간다면 즐거움도 두 배, 학습의 능률도 두 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교내활동은 물론 대외활동을 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들뜬 마음에 학교생활에 소홀히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당장 눈앞의 행복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미래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내활동과 대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이 어떨까.

세 번째, 동서대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살펴봐라

를 얻거나 혹은 다가와 주는 선배가 없다면 먼저 인사를 건네 보는 것을 추천한다.

여섯 번째, 좋은 시간표를 만들자

1학년 1학기의 경우 학교에서 시간표를 임의로 계획해주곤 한다. 하지만 특정 학과가 아닌 이상 그다음 학기부터는 학생들 본인이 직접 시간표를 계획하여야 한다. 시간표를 구성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막막할 수도 있다.

시간표를 계획할 때에는 선배를 혹은 주위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은 좋다. 또한 수업시간 사이에 무지막지한 우주 공강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나중에 있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생각하여 하루에 수업을 여러 개 이상을 넣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특정 요일의 공강이 생기게 만들어 주말 외에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일곱 번째,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자

교내 도서관은 학교에서 가장 폭넓기 때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공강 시간에 도서관을 잘 활용한다면 지루한 공강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이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제11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2019.03.01.(금) ~ 2019.04.30.(화)
 - 응모대상 : 2년제 이상대학 재(휴)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2~4인 이내)
 - 접수방법 : 이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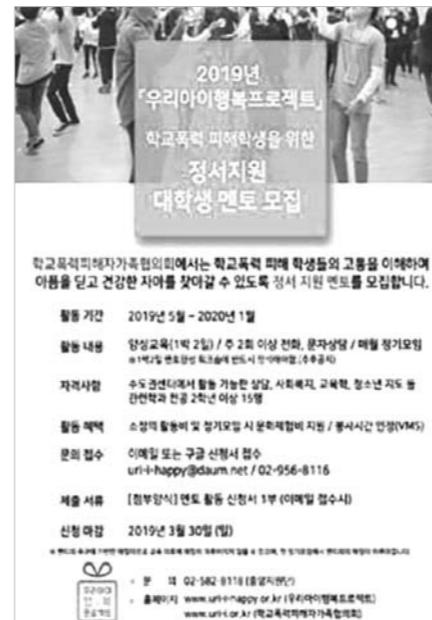
-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서비스
서포터즈 2기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공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기타
 - 접수기간 : 2019. 03. 04. (월) ~ 2019. 03.

- 2019년 친환경건축 블로그 기자단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공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 2019. 02. 28. (목) ~ 2019. 03. 22. (금)

- 2019 상상하는 여행자 대학생 공모전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모집일정 : 2019. 02. 26. (화) ~ 2019. 03. 31. (일) 23시59분 까지

- 채널뷰티 대학생 에디터&PD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공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 2019.02.27. (수) ~ 2018.03.17. (일)

- MASTERPIXTM AWARD 2019 공모전
 - **공모분야** : 예체능/미술/음악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기타
 - **공모일정** : 2019.02.28. (목) ~ 2019.03.24. (일)



- 2019 옥스팜 대학생 활동가 Oxfam Club 2기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 2019. 02. 27. (수) ~ 2019. 03. 17.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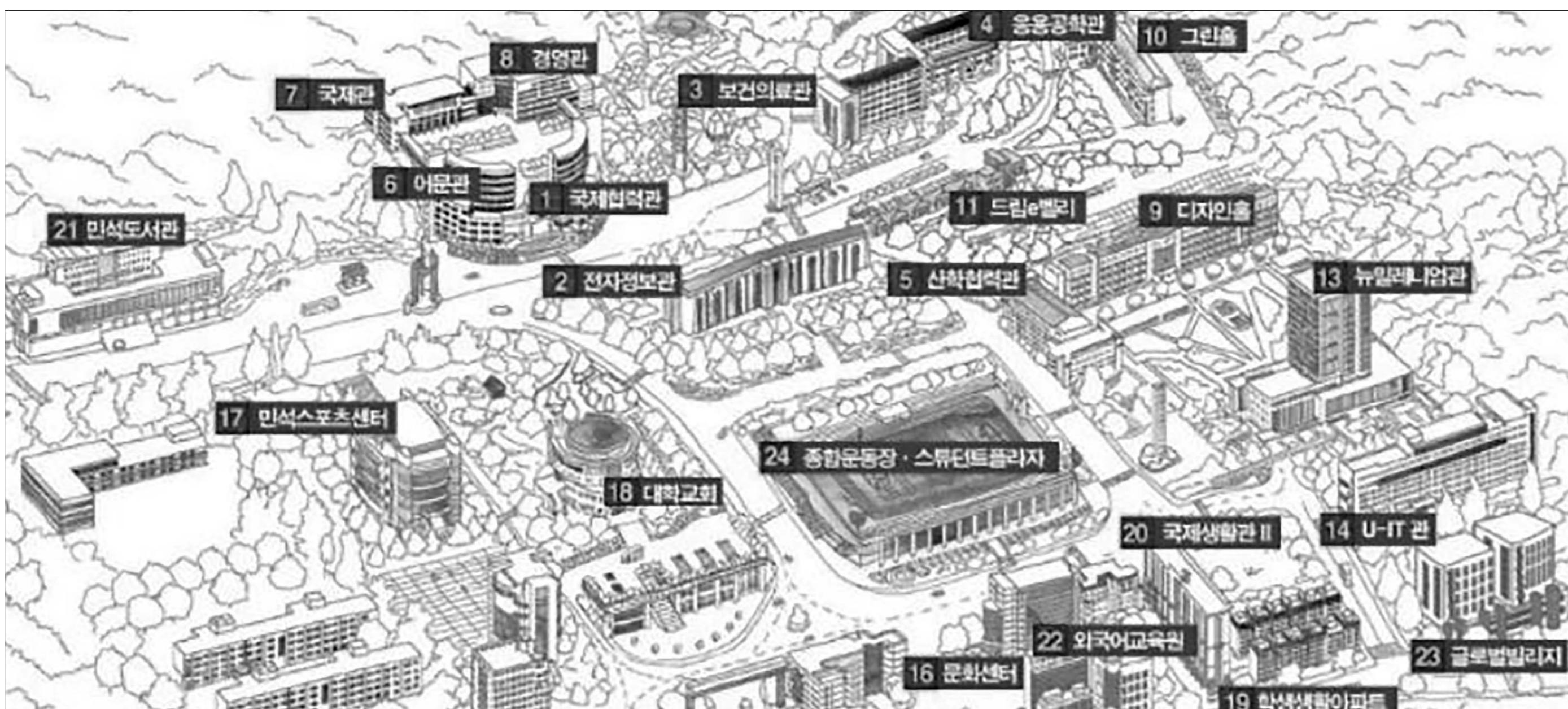
- 2019 뮤지엄 SAN 건축 디자인 공모전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건축/건설/인테리어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 2019.01.04. (금) ~ 2019.05.
10. (금)

- 2019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정서지원 대학생 멘토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봉사활동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 2019. 02. 27. (수) ~ 2019. 03.
30. (토)

-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철린지 1기 모집
 - 공모분야 : 취업/창업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 공모일정 : 2019.03.04. (월) ~ 2019.04.12. (금)

- 더마비 더마비안 10기 모집
 -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기타
 - 공모일정 : 2019. 02. 20. (수) ~ 2019. 03.
24. (일)

- 제6회 청소년/대학생 논문대회 (WCBM 2019 Junior Academic Competition)
 - 공모분야 : 논문/리포트
 -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청소년
 - 공모일정 : 2019. 02. 22. (금) ~ 2019. 05. 01. (수)



DSU 동서대 신문기자협회

CYWORLD 동서대신문사 ▼

3월 25일
수습기자모집

| 수습기자 모집 일정 |

- 일반기자(대학단신, 기획/특집, 글로벌, 취업, 문화)
- 동서대신문사에 관심있는 동서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교내 각 식당 및 동서대신문사 내 원서배부
- 지원 : 3월 4일 ~ 3월 25일까지
편집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면접 : 개별 연락드립니다. -동서대신문사
- 문의 : Tel) 320-2141(산학협력관 5609)
010-4760-3385(편집국장)

당신의 열정이
캠퍼스를 만들네라

Made in DSU Press